



www.woodencrosschurch.com
건강한 복음주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나무십자가한인교회

VISION 2015
하나님의 모든 종만하신 것으로 총만케 하시는 교회 (엡 3:19)

교회소식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23기도

매일 정오 12시에 3분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끼금식선교

일주일에 하루, 한끼금식 헌금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합니다.

1. 주일예배 설교감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신 이태식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 주일예배 장소 및 시간변경

12월 6일(주일)부터 본당(sanctuary)에서 드립니다. 예배시간은 오후 2시로 변경됩니다. * 다음세대 목장 예배장소는 변동 없습니다.

3. 제직학교

2016년 제직임명을 위한 제직학교가 12월 13일과 20일에 있습니다.
*임명예정자 : 유은숙, 임혜경, 정동진, 신윤진, 최자은, 박선아, 윤은경, 김영자, 강정은, 이광열, 최종희, 타티아나, 천길영, 김지연, 도유경, 김정미, 김선진, 유지인.

▶ 교우소식

*금주 다과 : 정동진, 강정은집사
*출타 : 담임목사(한국방문 11.16-12.4)

▶ 행사

*교회 : 12.6-성찬예배, 본당예배 / 12.13, 20-제직학교
*교계 : 11.28-교협청년, 청소년집회(강사:이영표집사/7시/순복음교회)

예배위원 안내

이변주	기	1부	문경화	2부	김지연	헌	박선아	안	11월 김은경
다음주	도		정동진		김정미	금	윤은경	내	12월 정동진

공동기도제목 123기도와 새벽기도 등을 통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몸과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성도를 위해	임혜경 집사 가정의 비전과 기도제목을 위해

선교현황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	다	Young 2080	김종현 목사
캐나	다	Power to Change	이정부 목사
캐나	다	하나선교회	박사라 목사
케	냐	Mission Kenya	정제호 선교사
북	한	First Steps	Susan Ritchie
한	국	Just Joy	우종진 목사

03-46

2015.11.22

주 일 예 배

1부 9:00 2부 13:30

인도 : 정병완목사

경배와 찬양	나무십자가위십
회중기도	(1부) 문경화사모
교회소식	(2부) 김지연집사
찬양	인도자
다음세대 축복	할레우스 찬양대
성경	너는시냇가에
봉헌찬송	마태복음 28:1-10
말씀	135(통133)장
	이태식목사

예수 거기서 보리라

* 찬송	2015년주제찬양
* 공동기도	다같이
* 축도	이태식목사

[성도의 교제]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 요 예 배

매주 수요일 저녁8:00

경배와 찬양	다같이
말씀	정병완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6:00

QTzine 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서학당

성경읽기방 (출애굽기편)

매주 (수) 오후 1시

확신과 성수반

매주(수) 오전10시, 오후1시/(목) 오후1시

2015년 하반기 목장 나눔

후반기 6회차, 11월 16일-11월 28일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무십자가한인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희생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신앙공동체, 올바른 복음과 말씀에 근거한 비전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비전공동체, 선한이웃선교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공동체로 세움 받은 교회입니다.

나무십자가한인교회는, 캐나다 복음주의 교단인 Foursquare Gospel Church 에 속한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후 1:30
	키즈	오후 1:30
	유쓰	오후 1:30
	청년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어머니다 (목) 오전 10:00

목장모임 목장별 (격주)

성서학당	성경읽기방	(수) 오후 1시
	성경개관	년 1회
	확신과 성숙	년 1회
	제직학교	년 1회



예배안내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목장공과

내가 원하노니...(마태복음 8:1-3)

마음열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알려진 요술램프의 지니(genie)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당신이 고백할 한 가지 소원을 목원들과 나눠보십시오.

내용보기

주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소원을 두고 이루어 가십니까?

1. '역경을 뚫고 나아오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2절).
2.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2절).
3.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인생이 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3절, 막 1장 41절).

나누기

1. 나병환자의 인생을 움아매고 있었던 나병처럼, 당신의 인생을 움아매어 당신으로 하여금 절망과 고통가운데 헤매도록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2. 주님이 당신과 함께 소원을 두시도록 하기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결단하여 실천해야 할 내용은 위의 1, 2, 3번 중 어느 부분입니까?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고, 그 이유를 고백해 봅시다.

적용하기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결단한 것이나 개인과 공동체의 중요한 기도제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

목양편지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니 만날 사람들도 많고, 들어서 인사드릴 곳도 많습니다. 어머니는 광주에 계시고, 저의 지인들은 주로 서울 쪽에 거주하고 있으니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일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리웠던 사람들을 만나 오랜만에 교제하는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인들을 만나고, 주변 지인들이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서 기쁨의 소식들도 있었지만,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이미 투병 중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과로사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간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위로의 말조차 한마디 전하지 못한 것이 송구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의 소식만큼이나 제 마음을 저리게 만드는 아픈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분명히 교회를 잘 다니셨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되어 그런 분들 중, 한 분을 만나 교제 겸 상담의 시간을 가졌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인지 결국 교회에 다시 출석하겠다는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을 떠나보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저에게 항변하기는 하였지만, 제가 듣기에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교회 불출석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을 어렵게 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을 기회 삼아 신앙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의 모습들이 제게 느껴진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여전히 붙들려 있고, 신앙의 여정을 이탈하지 않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도 큰 복입니다. 답답한 가슴을 안고 속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기억하며 온전히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우리 모두 잘 누리며 간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문경돈

교육목사(청년,유스) 정병완
전도사(찬양,미디어) 이강배
전도사(드림,비전) 김은경
할레루스찬양대 문경화
예배반주 양성윤

교회 (주일예배/새벽기도회)

1460 Lansdowne Dr. Coquitlam

שלמחנהמלגה (성서학당/그룹)

2724 Barnet Hwy Dr. Coquitlam

Contact (전화/이메일)

778-772-4738
woodencrosschuech@gmail.com